

영산호 수질 개선 '해수 유통' 어떻게

# 최소 2~3년 시뮬레이션 선행돼야

## 일부 갑문 개방 농경지 염분 피해 최소화할 현상태 방치엔 기업도시 배후지 개발 타격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전남발전연구원 운영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5급수로 악화된 영산호의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산호는 지난 1981년 12월 건설된 이후 26년여가 지나면서 최근엔 기형 물고기까지 발견될 정도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그러나 '준설'과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에 밀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이번 운영 결과 '해수유통' 쪽으로 가닥이 잡힘으로써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4급수 기준인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영산호는 최근엔 상당 수역이 5급수로까지 수질이 악화, 영산강 하구

환경과 인근 생태계가 심각할 정도로 파괴됨으로써 연안어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수질오염이라는 측면 외에도 영산호는 바깥 바다의 선박출입이 차단됨으로써 관광·개발가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새로 조성된 남악신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배후지역으로서, 해양 스포츠시설이 들어서기로 계획된 지역인 만큼 수질이 적어도 2급수는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남도가 최근 들어 부쩍 영산호 수질개선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기도 하다.

그러나 운영팀은 바닷물과 민물을 혼합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은 종전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해수유통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소 2~3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문을 몇 개나 얼마나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산호 지역으로 바닷물이 밀려들 경우 염분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 지'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운영팀은 특히 기존 8개의 갑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형태의 해수유통이 아니라 일부 갑문만을 개방하는 '부분 해수 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경우 수질은 크게 좋아질 수 있을 지라도 홍수에 대한 대처는 물론 농경지 배수를 비롯한 기존 토지 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수유통을 시도하자는 얘기다.

운영팀은 그동안 유력한 수질개선방안



으로 거론되어 왔던 준설과 관련,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원대에 육박하는데다 준설토를 저장해놓은 처리장에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인근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운영팀의 연구결과와 관련 "영산호 수질개선 방식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지만, J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남도의 현안사업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운영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산호와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전경. 전남발전연구원 운영팀은 영산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구둑 건너편으로 남악신도시가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국회 파행...F1·서남권 특별법 직격탄 국회 통과 불투명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대통합 국민신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관련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데 맞서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F1특별법)과 '서남권 등 나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 싸움을 떠나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쉽게 실마리를 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한 F1 특별법과 서남권 특별법에 대한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정부위 사태는 국감을 소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어 정치공세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사과하고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합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과 요구와 증인채택 무효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비교섭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국감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교통위원회의 서남권 특별법과 문화관광위원회의 F1 특별법도 심의가 늦춰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F1 특별법과 일괄처리하게 되어있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은 물론 서남권 특별법과 맞불린 연안법도 대선 이후 처리해도 된다는 느긋한 입장으로 알려져 위기감을 고

조시키고 있다.

F1 대회와 서남권 발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 경우 2010년 첫 행사를 여는 F1 대회 준비는 물론 서남권 개발사업은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파행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모두 부담되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을 도출되면서 서남권 특별법 및 F1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헬레나 밤바소바 외교부 차관을 만나, 여수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현대기아차 제공)

## 여수엑스포 막판 대세몰이

### 정몽구 회장·김재철 위원장 유럽 유치 강행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유럽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강행군을 펼쳤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 마르틴 지만 산업통상부 장관 및 헬레나 밤바소바 외교부 차관과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만나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또 지난 11일 오후에는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로베르트 피초 수상을 만나 유치 지지를 당부했으며,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60여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 및 대표 등을 초청해 여수 엑스포 홍보를 위한 만찬을 주최하며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함께 유럽에서 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인 김재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14일 향후 전략에 대해 "이제는 그동안 가능한 한 조용하게 했던 유치활동을 조금 더 소리내서 벌이며 대세몰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터키에 대한 유치활동을 마치고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그동안의 104개 회원국을 상대로 벌인 유치활동이 득표와 연결되도록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국이 자국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 여수가 대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 지역을 순방 중인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멕시코 외교부를 방문, 파트 리시아 에스피노사 칸테야노 장관을 대신한 로우르데스 아란다 베사우리 차관에게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박준영 지사 동유럽 3국 득표 활동

### 7박8일 순방 지지 호소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7일부터 7박8일 동안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순방하며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순방에서 박 지사는 김재철 여수 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정몽구 명예위원장, 전경련 및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국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여수엑스포 주제의 시의성, 우리나라의 박람회 개최능력 등을 적극 설명

하면서 득표활동에 전념했다.

박 지사는 지난 7~9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가나 경제부 장관, 코스텐코 외교부 차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여수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박 지사는 9~11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페트코프 내무장관, 코르네조프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여수박람회 지지를 호소했다.

또 박 지사는 11~13일 체코를 방문해 지만 산업통상부 장관 및 밤바소바 외교부 차관을 만나 여수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탄소, 고추틴코,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028-0200]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겁다고 뒤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